■ 매월 열리는 '종책특보단 회의' 취재해보니…

종책사업 추진상황 보고…계획 수립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종책특보단(총무원장 특별보좌관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종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특보단 회의는 종책특보단장 정념스님, 언론미디어특보 장적스님, 전산정보특보 정범스님, 해외특별교구특보 종민스님, 사회특보 월공스님, 신도시특보 허운스님, 불교문화콘텐츠특보 법해스님, 박기련 불자네트워크특보 등이 참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종책특보별 주요 종책사업의 추진상황 보고하며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산정보특보 정범스님은 '종단전산정보화사업보고'를 통해 △포털사이트 구축 △종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 VPN(가상사설망) 구축 △조계종 통합전산망 구축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불교 관련 주요 홈페이지의 회원을 통합 운영하고 종단과 유관기관, 사찰의 홈페이지를 상호 연계해 개발하는 '포털사이트구축사업'은 6월말까지 콘텐츠를 1차로 개발한 뒤 기능을 추가 및 보완해 오는 10월 포털사이트를 정식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간의 단일 네트워크망을 마련하는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 VPN 망 구축사업'은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8월부터는 중앙종무기관 내에 구축돼 있는 기록물관리, 증명 발급, 결계포살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교구본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계종 통합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구입 예산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정범스님은 "포털사이트 개설 등 정보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 스마트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특보 월공스님은 전통사찰을 항공촬영과 최첨단촬영시스템 등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미디어가람구축사업'을 제안하며 제2교구본사 용주사를 담은 시안을 선보였다. 월공스님은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단이 지적재산권을 갖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미디어가람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사업을 제안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통사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크지만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문화부와 기획실 등 관련부서와 사업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종민스님은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제정과 해외교구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민스님이 해외교구 소속 스님에 대한 영어승려증 발급, 외국인 스님에 대한 승가고시 영어시험 시행, 해외사찰의 봉축행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타당성이 높은 만큼 관련부서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장적스님은 불교방송과 불교TV 등 교계 방송사 현황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허운스님은 신도시 종교부지 활용에 대한 종단의 통일된 입장 마련 필요성 등을 보고했다. 또한 법해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활용 세미나 개최와 사찰안내 표지판 설치 계획을, 박기련 특보는 분야별 불자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불교포럼'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책특보 스님들이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각자 맡고 있는 종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지난 1일 열린 종책특보단 정례회의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종책특보들이 주요 종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동국대 제2건학 리스타트 '청신호'

'후원의 밤'에서 건학기금 196억원 모연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총장 김희옥) 제2건학 리스타트(restart)프로젝트에 대한 각계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 5월31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국대 제2건학 리스타트'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과 상임이사 성관스님 등 이사들과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학교 발전에 성원을 보냈다.

김희옥 총장 취임 3개월 여 만에 모연한 제2건학 기금은 19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스님)은 불교학진흥기금 5억2000만원과 국제선센터 건립기금 50억원 등 55억2000만원을 후원, 최다 금액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또 동국대 총동창회에서 10억 원을 쾌척했으며, 조계종에서 5억3000만원을, 행정대학원 동문회에서 5억 원을, 동국대 정각원 법타스님이 4억 원을 각각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불교의 위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불자인재양성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훌륭한 인재들이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제2건학운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동국대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제2건학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3대 명문 사학의 명성을 다시 찾아서 사회에 기여하고 2000만 불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정련스님은 김희옥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가 동국대 리스타트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동국대는 지난 5월31일 제2건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불기2555년 하안거 포살

불기 2555년 하안거를 맞아 대중결계 및 포살법회가 전국 각 교구본사와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지에서 실시된다. 〈표 참조〉 조계종 총무원은 대중결계 및 포살법회 일정을 발표하며 종단 소속 스님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계는 수행처의 경계를 정하고 청정함을 선언하는 것이며, 포살은 자신이 지은 허물을 참회하는 법회의식이다.

총무원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결제기간 중 1개월 이상 입원중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포교중인 스님 △결제기간 중 1개월 이상 해외공무 출장중인 스님 △군 복무중인 스님 등을 제외한 조계종 스님이라면 포살법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특히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스님도 특별분한 신고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대중결계 및 포살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각 교구본사 등의 포살 시행 일정

교구	사찰명	포살일정(양력)	시간	포살법사	포살장소
1	직할교구	6/14 6/28 7/12	15:00 6/28 16:00	영담, 상운, 혜담스님	조계사 대웅전
3	신흥사	6/28	15:00	우송스님	신흥사 설법전
5	법주사	6/15 7/14	13:00	철운스님	법주사 대웅보전
6	마곡사	6/29	14:00	–	마곡사 대광보전
7	수덕사	6/15 7/14 8/13	13:30	–	수덕사 황하정루
8	직지사	6/24 7/29	14:00	성웅스님	직지사 만덕전, 설법전
9	동화사	6/24 7/13 8/03	14:00	철우, 도일, 지운스님	동화사 대불전
10	은해사	6/24	14:00	–	은해사 설법전
12	해인사	6/30 7/30	08:00	지효, 경성, 진일스님	해인사 대적광전
13	쌍계사	6/15 7/14	14:00	효명스님	쌍계사 설선당
14	범어사	6/30 7/15 7/30	14:00	흥교스님	범어사 설법전
15	통도사	6/16 6/30 7/15 7/30	08:00	혜남스님	통도사 설법전
16	고운사	06/15 06/30 07/14	14:00	등오스님	고운사 선체험관
17	금산사	6/21 7/16 8/12	11:00	일원스님	금산사 대적광전
18	백양사	6/30 7/30	10:00	법장스님	백양사 대웅전
19	화엄사	6/29 7/28	10:00	종곡스님	화엄사 각황전
21	송광사	6/16 6/30 7/15 7/30 8/14	08:00 6/30 13:00	대경, 도일, 덕조, 진경, 영조스님	송광사 대웅전
24	선운사	6/15 7/18	11:00	재연스님	선운사 대웅전
25	봉선사	6/14	14:00	–	봉선사 청풍루

불교사회연구소·군종교구에 1억 지원

아름다운동행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군종특별교구와 불교사회연구소 발전을 위해 기금을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군종교구장 자광스님과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의 예방을 받고 각각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종책모임 화엄회와 법화회가 선서화전 수익금으로 기탁한 3억 원 가운데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지정 기탁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와 연구소 운영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군종교구는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힘쓰고, 연구소는 맡은 연구 활동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소장 법안스님은 "안국선원도 연구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연구소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책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5대결사 가치 구현"

템플스테이 축제서 선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과 실무자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수행, 문화, 나눔, 생명, 평화의 가치를 바르게 구현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에 참석해 '생명 문화와 평화 나눔의 템플스테이 실천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11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가운데 89개 사찰, 200여 명의 운영자 스님과 실무자 참석한 이번 문화축제에서는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한 내부 성찰'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 발전에 걸림돌이 된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어현경 기자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구독신청 (02)730-4488 광고문의 (02)730-4490

제4회 한암사상연구원 학술회의

鏡虛선사와 漢岩선사

한암사상연구원(오대산 월정사, 한암문도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종 총무원 건물)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한암사상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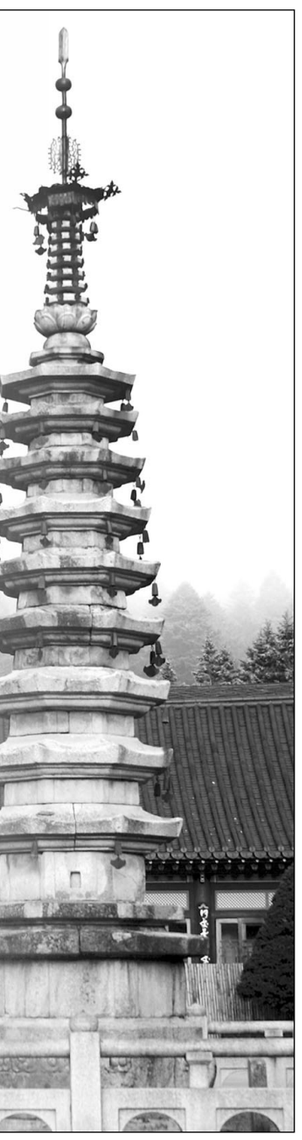
본 학술회의에서는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鏡虛)선사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한암(漢岩)선사의 선사상과 師資관계(스승과 제자), 그리고 한암(漢岩)선사와 만공(滿空)선사의 역할, 한암 육필본 『경허집』 간행과 그 이후의 여러 경허집에 대하여 (각본의 동이점과 오역 등) 고찰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근대 한국선은 그 정점에 경허선사가 있고 그의 제자로서 혜월, 만공, 한암선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산 월정사 회주 玄海
오대산 월정사 주지 正念 합장

● 학술회의
● 일 시 : 2011년 양력 6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6시까지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총무원 청사)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오대산 월정사, 한암문도회
● 학술회의 사회 :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철과 교수)

● 발 표
▣한암의 격외관문과 간화(看話) –경허와 한암의 조사선 傳承–
발표자–변희욱(서울대 철학과, 간화선 전공)
▣『경허집』 편찬, 간행의 경위와 변모 양상 발표자–이상하(민추 교학처장)
▣한암(漢岩)과 만공(滿空) 발표자–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경허선사의 지음자(知音者) 한암 발표자–윤창화(민족사 대표, 한암사상연구자)
▣종합토론 토론자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교수, 선, 화엄 전공)
전보삼 교수(신구대학 교수, 만해기념관장)
자현스님(철학박사, 월정사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전화 033-339-6800, 서울 02-732-2404(민족사)